

투데이 칼럼

한반도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과 평화의 공존하는 공간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덕분에 자연 또한 온전히 보존되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생태계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을 렌즈에 담아 온 사진작가가 있다. 30년 넘게 세계를 돌며 분쟁과 경계의 현장을 기록해 온 박종우 작가다.

그의 사진 속 비무장지대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풍경을 볼 수 있다. 강원도 고성은 동해를 옆에 두고 북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분단의 경계가 선명하다.

고즈넉한 산 아래 길, 작가의 사진이 멈춘 곳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 이 구조물은 대전차 장애물이다.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물이다.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치'라고 부른다. 이런 '용치'가 서해, 백령도, 연평도 도서지방부터 동해안 끝까지 많은 곳에 남아있다.

언뜻 보면 돌무더기 같지만, 용치는 적 전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세워놓은 대전차 장애물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6.25 전쟁의 상흔이기도 하다.



정복규
논설위원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조물이다. 작가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민간인으로서 처음으로 촬영한 사진작가다. 이곳에는 작가의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이 있다.

이곳엔 그가 기증한 작품 17점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DMZ를 촬영한 여타 사진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분단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사진들이다. 안에 들어 가면 도성의 흔적, 문덕이 보인다. 부서져 있는 집들의 흔적, 잔해들이 남아있다.

동해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낙타봉'도 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도 전쟁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 눈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이 만든 포진지다. 포가 속으로 들어가 있

다가 나와서 포를 쏠 수 있게 돼 있다.

고요한 자연의 풍경 같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GP에서 보면 매일 금강산에 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DMZ 남측 지역에 처음 설치된 GP였다.

9.19 군사합의 때도 파괴되지 않고, 2019년 문화재로 등록된 곳이다. 새들은 남과 북을 마음대로 오가는데, 군인들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사진 속에는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과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다.

작가는 2009년엔 국방부의 의뢰를 받고 DMZ 내부를 촬영하게 되었다. 군에서 제공한 헬리콥터를 타고 하

늘에서 찍은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었다. 그곳의 낮적이고 평온했던 풍경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지척에서 지뢰가 발견될 만큼 수많은 위험이 도사렸지만, 기록은 꼭 필요한 작업이었다. 철책 너머 전쟁의 아픔을 기록해 온 작가는 잊혀진 생명과 일상도 조명해 왔다.

작가는 지금도 분단의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6·25 전쟁 전까지 고성군 전역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200미터 길이의 합죽교는 전쟁 이전과 이후 남과 북이 절반씩 건설한 다리다.

한쪽으로는 북한이 났고, 반대쪽 반은 한국 공병대가 났다고 한다. 작가는 분단의 흔적을 하나씩 짚어가 본다. 북한이 세운 기둥은 전부 북한이 세운 것이라고 한다.

DMZ 그리고 접경지역에서의 작업은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분단국가 태생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작가는 "DMZ 작업으로 인해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연처럼 사람도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설

손흥민, 첫 우승까지 15년

손흥민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간판스타지만 유독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최근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라, 프로 무대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손흥민은 유럽 클럽 대항전 우승을 이끈 최초의 한국인 주장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썼다. 프로 첫 우승까지 무려 15년이나 걸렸다. 결국 좌절의 시간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

손흥민은 18세이던 2010년, 골키퍼를 제치고 환상적인 프로 데뷔골을 넣으며 새로운 전설의 탄생을 알렸다. 독일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입단한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수많은 명장면을 연출했다.

푸슈카시상 수상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유독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선 리버풀을 넘지 못하고, 잉글랜드

드 리그컵 결승에선 맨시티에 막혀 고개를 푹 숙였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도 무관의 시간이 이어져 월드컵과 올림픽을 오가며 탈락의 아픔을 오열했다. 가장 우승에 가까웠던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에선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 골을 넣고도 또 다시 좌절했다.

당시 위로를 건넸던 호주 감독과 10년 뒤 우승을 합작하면서 마침내 기나긴 아쉬움을 털어냈다. 감독은 10년 전 아시안컵 결승에선 상대 팀 감독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속소 알까지 찾아온 팬들은 새 역사를 쓴 주장의 응원을 부르며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손흥민이 흘린 기쁨의 눈물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딛고 거둔 성과라 더욱 값진 의미로 다가왔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28회 전북문인화전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가 5월 29일부터 29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라 1실에서 '제28회 전북문인화전'을 개최했다. 전북지회 소속 70여명의 회원들이 출품한 이번 전시회는 문인화가 지닌 서정성과 철학성을 한껏 보여주었다.

이번 화원전은 옛 선조들의 작품 못지않게 다양하며 심도 있는 문인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1998년 창립 이래 꾸준히 전북 예술 문인화의 맥을 이어온 전라북도지회는 해마다 화원전을 통해 작가들의 예술혼을 대중과 공유해 왔다.

올해는 '작가의 내면세계와 철학을 담내는 예술로'라는 의미를 담아 회원들의 철학적 사유와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선비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이미지와 잘 어울렸다. 문인화는 글씨와 그림, 그리고 시의 감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

다. 먹의 농담과 간결한 필치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표현해내는 예술 장르다.

사군자(梅·蘭·菊·竹)를 비롯해 다양한 자연 소재와 함께 현대적 해석을 더한 작품들에는 작가들의 성찰과 이상이 담겨 있다.

김용배 지회장은 "문인화는 단순한 그림을 넘어 작가의 내면세계와 철학을 담내는 예술로, 동양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시대가 급변하고 세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작품을 감상하며 차 한 잔 하는 여유를 찾는 것이 우리 선조의 문인화이다. 그런 정신을 통해 문인화가 현대 회화로서 본래 의미를 갖추어야 한다.

점, 선, 면 그리고 먹빛이 어울리는 작품으로 현대미술 시장의 좋은 성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문인화의 정수를 느끼고, 예술이 지닌 정신적 깊이를 함께 나누는 지리가 되기를 바란다.

독자제언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행위 4일부터 처벌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 수법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술을 마신 후 운전 도중 단속을 발견하면, 단속 직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이 교묘한 방식은 단속을 무력화시키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더욱 키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법제처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들었다.

오는 6월 4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음주 측정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무효화하려는 행위에 대

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간주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술타기' 같은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번 법 개정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안전한 도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성창현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하버드대 총장 "전 세계에서 학생, 마땅히 환영"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버 총장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당연히 그라야 하는 모습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해 균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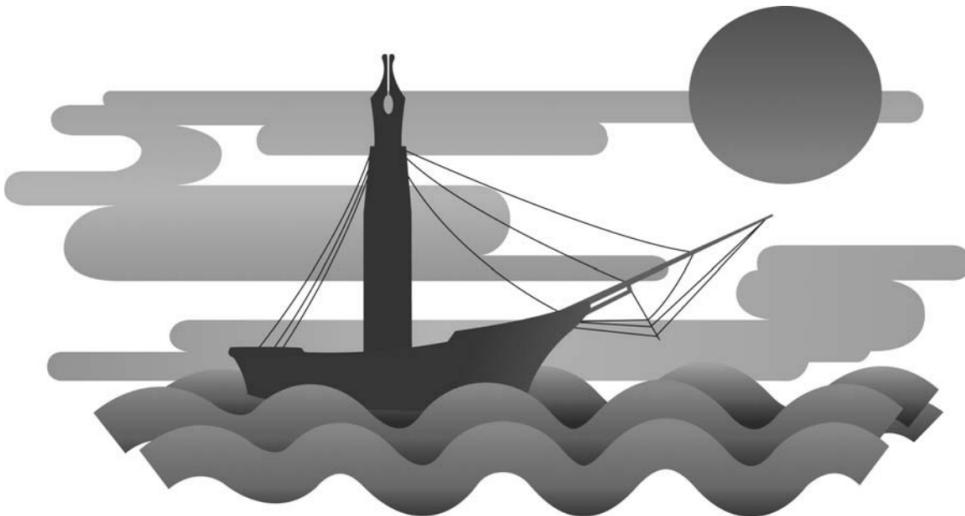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